

지역 매 아리

국립전북기상과학관

한여름밤의 '별나라축제'

제18회 별나라여행축제(이하 별나라축제)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정읍시 상평동 공설운동장 옆)에서 열린다.

별나라축제는 정읍 천문연구회(회장 임청규)가 주최하고 정읍천문연구회, 혜성(정주고등학교 동아리),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 주관한다.

주최와 주관 측 관계자는 "정읍시와 기상청이 협업사업으로 추진, 2017년 개관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태양계 천체 관측과 기상과학에 대한 연구와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나라축제는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된다. 유소년부터 초·중·고 및 청소년들과 학부모·일반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실공사 의혹 권익현 군수 철저 규명 특별지시

부안군 상서·하서면 일원의 언덕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8일 권익현 군수는 "최근 부안군 상서·하서면 일원의 언덕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다"며 "감사청에 토목직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철저히 감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말했다.

최근 한 언론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된 언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분 공사에서 갯벌로 땅을 매워 도로포장 침하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감사팀에 토목직 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해 현장 및 설계도면 사실조사 등 자체 감사에 나섰으며 감사결과 위반사항 발생시 법적 조치하는 등 철저히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관련된 슈트파일 등 기타 여건변경 물량에 대해 최종본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 조정키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리체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폭염피해 대책 추진

그늘막 설치·얼음 비치 생수·쿨 스킨 등 제공 현장방문·안전점검 등

고창군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기상 군수는 현장 행정을 통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피해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은 살수차 운영을 위해 1억2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9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얼음을 비치했다.

또 무더위쉼터와 폭염취약계층에 시원한 생수와 쿨 스킨 등을 제공해 잠시나마 군민들이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134가구에 생수기를 지원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와 상시 안부전화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 현장과 영농 작업장 등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9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과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폭염 기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족 보호를 위해 축사에 자가발전기와 환풍기,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하고 261개 농가에 가족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수산물 보호관리를 위해 폭염대응 비상대책반을 편성, 내수면 사업장 178

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 작동·어류사육 밀도 조정 등을 점검·지도하고 내수면, 어촌계 어업장 191개 어가에 대해 홍보물을 발송해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가뭄해소를 위해서는 115만7000㎡(약 35만평)의 가뭄 극심지역에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수를 공급했다.

주민들이 농업용 관정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6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1건의 송수관로 설치와 3개소의 저수지 준설, 2개소의 관정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과 가뭄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인명, 재산 등 분야별 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발 벗고 나서

중앙부처 잇따라 방문 새만금박물관 등 현안 건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권익현 부안군수가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하는 등 지역발전에 발 벗고 나섰다.

8일 권익현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기획재정부 등

을 찾아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과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신항만~정읍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 새만금박물관 건립사업(공사비 146억 원 반영), 국도 23호선(부안~흥덕) 확포장사업(실시설계비 80억원 반영), 운산 도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 25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지난달 26일 권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안 연고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캠프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기획재정부에서 내

년도 정부예산안 확보를 한 달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미결 및 쟁점사업에 대한 3차 심의가 이뤄진다"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질의서 등을 제공해 상임위별 예산심의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단계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전 직원 비상령 가뭄극복 총력

연일 지속하는 폭염과 강우 부족 등 가뭄 장기화에 따라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가 전 직원들에게 비상령을 내리고 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안군청(건설과)의 도움을 받아 가뭄이 극심한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동진면 본덕리 일원(약 208ha)에 해결을 위한 야간급수를 실시 하고 철보에서 취수하여 37km에 위치한 무네미관리소(신흥리)에서 분기한 부안 간선(15.4km) 말단급수를 위해 주요 수문 15개소를 야간단속하여 부안 간선 말단부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 밤낮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지사는 중정비를 동원하여 급수가 어려운 동진지구(동진

면 안성리 일원) 하천과 배수로 수조 제거를 시행하여 우수 흐름을 개선하여 용수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남출 지사장은 "버려지는 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저수지 물의 유통량을 최소화해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의 물 절약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중국 대학생 재능 기부·정읍문화체험 캠프'가 지난 6일부터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캠프어로 다채로운 정읍을 느껴요

중국 대학생 재능 기부·문화체험 진행 성황

'중국 대학생 재능 기부·정읍문화체험 캠프'가 지난 6일부터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교육지원청과 내장사의 협조를 받아 당일 시작된 캠프가 이달 12일까지 이어진다.

캠프에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에는 중국대학생들이 정읍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중국대학생들과 우리 중고생들이 함께 정읍문화를 체험한다.

7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첫 수업은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고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쓰고 중국식 발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중국 대학생들과 정읍 중고생들이 한조를 이뤄 서로 이름을 익히는 등 친

숙함을 다졌다.

관계자들은 이후 8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질 수업에서도 중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초점을 맞춰 중국 종이 공예와 중국 만두 빚기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체험 프로그램은 7일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된 구절초 비누 만들기 체험으로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정읍의 특색이 담긴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0월에 열릴 정읍의 대표축제인 '구절초 꽃 축제'를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중국 대학생과 지역 중고생들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주민과 함께 살아있는 친수공간 소하천 조성

고창군, 정비사업 추진 박차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올해 10억 2000만원을 투입해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월사업인 북동소하천, 정거소하천과 계속사업인 속골소하천, 울해 신규사업인 옥동소하천 총 4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며, 이월사업인 정거소하천은 지난 6월에 최종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신규사업인 옥동천은 현재 시설설계를 완료 중앙 사전설계검토 절차를 이행완료하고 이달 중 도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9월 중 공사발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사업인 옥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옥동소하천 주변 가옥과 농경지에 대한 심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동소하천은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속골소하천은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농번기가 끝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2020년까지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주변정비로 지역주민 편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열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람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